

여성경제신문

프랑스가 낳은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개최

22 January, 2016 | 문인영



▲ /사진제공=국제갤러리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이 오는 2월 2일부터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6년만에 열리는 오토니엘의 개인전이다. 그의 대표적인 유리조각 작품은 물론 석판화 작품까지 작가의 신작 1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장 미셸 오토니엘은 작품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존재의 상실과 부재,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상처를 주제로 다루어왔다. 주로 유황, 왁스, 인과 같은 화려한 외형과 반대되는 독특하고 역설적인 재료들을 작품에 활용하던 작가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를 매체로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작품활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석판화 'Black Lotus' 시리즈 5점은 검은 연꽃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 모습을 제작한 작품이다. 알루미늄, 거울유리, 석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로 작업한 이 작품들을 통해 장 미셸 오토니엘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열린다.

URL :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29532>